

## 불교와 유교의 이상세계를 찾아서 - 성주 범수사지와 현풍 도동서원 -

### 현풍 도동서원(道東書院)

#### I. 한국 서원(書院)에 대하여

서원이란 명칭은 당나라 때 궁중에 설치되어 서적을 편찬하고 보관하던 '집현전서원(集賢殿書院)'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선현을 받들어 모시고 어울려 공부하던 본격적인 서원은 송나라 때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사대부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이들은 지방 곳곳에 사사로이 글방을 세워 후진을 양성하였는데, 그 역량이 커지자 나라에서는 서원이란 이름을 내려 장려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542년(중종 37년) 풍기 군수 주세붕(周世鵬)이 고려 말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소개한 안향(安珦)의 옛 집터에 사당을 짓고 제사 지내며 선비의 자제들을 교육하면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서원이란 명칭은 세종 때에 이미 쓰이고 있었다. 그 예로 전라도 김제의 정곤, 광주의 최보민, 평안도의 강우량 등이 사사로이 서원을 세워 생도를 교육한 공로로 포상을 받았고, 경상도 단성에는 도천서원(道川書院), 성주에는 천곡서원(川谷書院), 전라도 부안에는 도동서원(道洞書院)이 세워져 각기 문익점, 김굉필, 김구를 제사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서원은 후진교육과 선현봉사(先賢奉祀)의 두 기능을 아울러 지닌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원의 시초로는 백운동 서원을 일컫는다.



그림 1. 경주 옥산서원

#### 1. 설립 배경

- 1) 관학의 부진 2) 사림의 성장 3) 학풍의 변화

#### 2. 서원의 역할

- 1) 공부하는 곳 2) 先賢의 위패를 모시는 곳 3) 향촌 사회의 도서관

#### 3. 서원의 설립 장소

##### 1) 입지 조건

- ① 세속에서 벗어나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치가 좋고 한적한 곳에 위치한 서원

-- 이산서원, 역동서원, 영봉서원

② 절터 또는 퇴락한 사찰을 이용하는 경우 -- 소수서원, 옥산서원, 노강서원, 임고서원, 청성서원

③ 배향하는 선현의 연고지와 관련이 깊은 서원 -- 소수서원, 옥천서원

④ 배향된 선현들이 살았을 때 세운 서당이 발전한 경우-- 도산서원, 둔암서원, 덕천서원, 병산서원, 노강서원, 필암서원, 회연서원

## 2) 지역적 분포

서원은 삼남 지방 그 중에서도 경상도에 많이 세워졌으며, 안동, 상주, 대구, 진주, 나주, 남원, 청주 등에 밀집해 있다. 특히 영남 지방은 정몽주, 길재, 김종직, 김굉필, 정여창, 이언적, 이황으로 이어지는 성리학의 정맥을 자부하는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자연히 서원도 많이 건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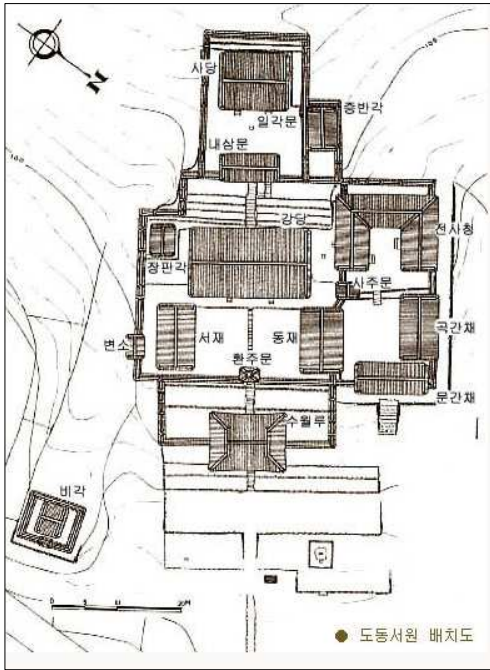


그림 2. 도동서원 배치도

있도록 계획한 것이 서원 건축의 특징이다. 조경 또한 경내에는 철따라 피고 지는 꽃과 낙엽수를 심어 계절에 따른 풍치를 감상하도록 하였고, 경외에는 松, 竹을 심어 푸른 산의 정기와 선비의 기상을 풍기게 하였다.

\* 강당(講堂) -- 학문을 토론하는 곳으로 서원 안에서 제일 규모가 크며 넓은 대청 마루와 온돌방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 건물 중앙 처마 밑에 현판이 걸려있는데 中正堂(도동서원), 敬義堂(덕천서원), 求仁堂(옥산서원), 立敎堂(병산서원), 明誠堂(남계서원)이란 현판이 남아 있다. 정면 5칸, 측면 2칸이 일반적이다.

## 4. 서원의 시설

공간 구성과 배치는 교육 시설인 재실(齋室)과 강당(講堂), 제향 시설인 사당(祠堂)으로 나누고 앞쪽에는 교육 시설을 뒤쪽에는 제향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전학후묘(前學後廟)

건물은 검소한 선비 정신에 따라 복잡한 포나 장식을 피하고 익공이나 도리집 등의 간소한 양식으로 화려하지 않게 꾸민 것이 보통이며 단청은 사당에만 사용하였다. 각 건물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중심축이 있어 앞에서부터 정문, 누각, 강당, 내삼문, 사당 순으로 배치하고 강당 전면 에 좌우 대칭으로 재실을 두었다. 그리고 제기고, 장판고, 교직사 등을 적절히 배치하였다. 이 건물 배치는 지반에 차이를 두어 주 건물과 부속 건물의 공간 구성을 적절히 하고 담장은 외부와 분별은 되게 하였지만 높지 않게 하거나 그 일부를 터놓아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여 내부에서 밖을 바라볼 때 자연의 산수를 접할 수

\* 재실(齋室) --원생들이 잠자는 곳으로 보통 강당 앞에 대칭으로 자리하고 있다. 강당을 향하여 설 때 오른쪽의 재실을 동재라 하고 왼쪽 것을 서재라 한다. 동재에 기거하는 원생이 서재 원생보다 선배다. 현판에는 養正齋, 輔仁齋(남계서원), 居仁齋, 居義齋(도동서원), 進德齋, 崇義齋(필암서원) 등이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이 일반적이다.

\* 사당(祠堂) --선현의 위패(또는 영정)을 모시고 봄과 가을에 제사지내는 곳으로 배향 인물은 보통 1인을 주향으로 시작하나 뒤에 다시 추가로 배향하기도 한다. 명칭은 尙德祠(도산서원), 泰山祠(무성서원), 尊德祠(병산서원), 體仁廟(옥산서원) 등이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이 일반적이다.

\* 장관고(藏板庫)--장판각, 장경각, 서고 등으로 부르며 서책이나 이것을 찍어낸 목판을 보관하는 곳이다.

\* 제기고(祭器庫)--제향 때 필요한 제수를 마련하고 기물을 보관하던 곳으로 典祠廳이라고도 한다. 제향은 크게 향례와 묘사로 나뉘는데 향례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의 中丁日(그달의 일진에서 중간에 있는 丁日)에, 묘사는 음력 3월 10일과 10월 2일에 행한다. 기물은 주로 목기와 죽기를 쓴다.

\* 누각(樓閣) --원생들의 휴식이나 여가를 위해 마련한 건물로 누각이 없는 곳도 많으며 정문을 겸한 곳도 있다. 현판에는 無邊樓(옥산서원), 水月樓(도동서원), 晚對樓(병산서원), 絃歌樓(무성서원), 廓然樓(필암서원) 등이 있다.

이밖에 서원의 정문인 外三門, 제향 구역의 정문인 內三門, 원지기들이 거주하는 校直舍 등이 있다.

##### 5. 조선후기 서원의 변천

서원은 후진 양성과 선현 봉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성리학을 도입하여 향촌 사회의 교화와 사회 개혁을 부르짖던 사람의 성장과 봉당 정치의 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봉당 정치가 변질하고 정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서원은 당파의 향촌 사람 포섭에 이용되거나, 정쟁에서 희생된 자파 인물에 대한 신원을 위해서, 또는 17세기 이후 동쪽 내지 가문의식이 강화되면서 족적 기반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건립되기에 이른다. 이같은 서원의 건립은 교육의 질적 저하는 물론 갖가지 사회적 폐단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자 서원에 대한 문제가 1644년(인조 22)부터 제기되어 숙종대에 서원금령이 내려지기도 하다가 영조대에 이르러는 탕평책의 일환으로 1741년(영조 17)에 서원 철폐가 단행되었다. 이리하여 지방관의 책임하에 19개의 서원을 포함하여 173개의 사원(祠院)이 훼손되었다. 그 후 서원 건립은 크게 둔화되어 거의 정지 상태가 되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민폐를 구실로 1871년 학문과 충절이 뛰어난 인물에 대하여 일인일원(一人一院) 이외의 모든 첩설 서원을 일시에 훼손하여 전국에 47개소의 사원만 남게 되었다. 그중에 서원 명칭을 가진 것은 27개소고, 祠가 20개소다. 이중 11개소는 북한에 소재하여 근황을 알 수 없고 6.25 전쟁으로 소실된 김화의 충렬서원과 철원의 포충사는 그대로 방치되어 현재는 34개소가 존속하고 있다.

## II. 도동서원

소재지 :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번지

종 목 : 사적 제488호

### <도동서원 개요>

"서원"이란 성리학적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조선 중기에 설립한 조선조 최고의 사립 교육기관이었다. 1543년 조선초기 학자 주세붕이 고려 말 학자인 안향을 배향하는 사당과 함께, 유생을 가르치기 위한 강당인 명륜당을 세워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이라 했다. 소수서원 이후 많은 '사액서원'들은 국가에서 서원 현판을 하사 받고 공식 인쇄된 서적도 배급받았다. 서원에 모셔진 선현의 지위도 격상되는 영예를 안게 되고 서원에 속한 토지와 노비는 세금과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는 특혜를 누려 17-18C에는 600여 개의 서원이 난립했다. 1871년 흥선대원군 때 '서원 철폐령'을 단행하면서 47개소만 남기고 모두 철폐했는데, 이때 남은 것 중 하나가 <도동서원>이다.



그림 3. 돌계단과 환주문

'성리학의 도가 처음 동쪽으로 왔다'는 도동서원(道東書院)은 '조선5현' 가운데 한 분인 김굉필 선생의 위패를 모신 서원이다. (조선5현::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 한훤당 김굉필, 일두 정여창, 정암 조광조, 회재 이언적, 퇴계 이황) 선조원년(1568).. 비슬산 산기슭에 '쌍계서원'을 세웠으나 정유재란 때 왜병의 방화로 불타버리고, 선조38년(1605)에 현 위치에 다시 세워 '보로동서원'이라 했다. 2년 후.. 퇴계 이황과 김굉필의 외증손자인 한강 정구 선생의 주도로 유림의 협조를 받아 선조40년(1604)에 사액서원이 됐다. 이때 마을 이름도 '도동리'로 바꿨다.

### <도동서원의 배치와 건축>

달성 도동서원은 '영주 소수서원(사적55호)'과 '안강 옥산서원(사적54호)', '안동 도산서원(사적170)', '안동 병산서원(사적260호)'과 함께 우리나라 5대 서원 가운데 하나다. 도동서원은 건립할 당시 안동에서 나는 귀한 목재를 낙동강을 통해 실어 와 지을 정도로 정성을 쏟았으며 배산임수(背山臨水)를 위해 북향을 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도동서원>의 사당과

1) 임금이 사당이나 서원 등에 이름을 지어 그것을 새긴 편액을 방안이나 문 따위의 위에 거는 가로로 된 긴 액(자)을 내리던 일.

중정당, 토담은 보물 350호로 지정됐다.

도동서원의 정문인 "수월루(水月樓)".. 정면3칸 측면3칸의 팔작지붕으로 1888년 소실된 것을 1993년에 재건했다. '물위에 비친 달빛'인 누에 올라 경치를 즐기고 시를 지으며 휴식을 취한 누각이다. "환주문"으로 오르는 계단과 화단에는 연꽃무늬와 태극문양이 꾸며져 있어 아기자기한 멋을 준다. 내 마음의 주인을 부르는 문 "환주문(喚主門)".. 한껏 차려입은 선비들이 갓이 닿을까 몸을 잔뜩 낮춰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사모지붕 위 절병통은 작지만 아름다운 한국 정서가 물씬 풍겨 살며시 미소짓게 했다.



그림 4. 중정당과 서재

록 벽에 판문을 두었고 아궁이를 건물 뒤편에 뒀다. 하지만 평민자제가 머무르는 '서재'인 '거의재(居義齋)'는 둥근 기둥인 원주를 함부로 쓸 수 없는 당시 규정에 따라 사각기둥으로 지붕을 받쳤으며 민도리형식 건물이다. 쪽마루는 벽으로 막혀있고 아궁이가 건물 앞에 있다. 이렇게 작은 건물 하나에도 철저한 계급의식을 담고 있다.

원장님이 기거하며 강학공간으로 썼던 "중정당(中正堂)"은 "동재"와 "서재"를 좌우에 두고 있다. 중정당이 북향하고 있어 '서재'가 동쪽에 있고 '동재'가 서쪽에 있는 점이 남다르다. 작은 마당을 가운데 둔 동재와 서재는 유생들의 기숙사였는데, 서로 다른 구조를 하고 있어 눈여겨볼 만하다. 양반자제가 머무르는 '동재'인 '거인재(居人齋)'는 정면3칸 측면1칸으로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원기둥이다. 쪽마루가 있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中正堂"..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실천한다는 뜻이다. 이곳엔 '도동서원'과 '중정당'이라 적힌 편액이 있는데, 1607년 선조임금이 하사한 '도동서원' 사액 편액은 배대유 선생의 친필이며 퇴계 이황 글씨를 집관 한 것도 있다. '중정당' 현판은 이관징 선생이 쓴 것이다. 중정당 기둥에 한지를 붙여 기둥 트는 것을 알 수 있게 했고, 교단처럼 생긴 '정료대(庭燎臺)'가 눈길을 끈다. '정료대'는 긴 돌기둥과 사각형 상석으로 만들었으며 솔가지나 기름통을 올려놓고 불을 밝히는 조명대이다.



그림 5. 도동서원 편액

"중정당" 기단은 400년 세월을 뛰어 넘는 미적 감각과 정성이 돋보인다. 사각 육각 십이각 등 다양한 모양이 세월의 무게를 안은 듯 여러 가지 빛깔을 뛰어 멋진 조각보를 보는 듯 하

다. 소담스럽게 만들어진 석물도 눈길을 끄는데, 우기에 낙동강 물이 이곳까지 범람하지 않



기를 기원하던 염원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네 마리의 용에 담겨있다. "환주문"에서 "중정당"을 잇는 중앙 돌길 끝자락엔 험상궂은 표정의 현무(돌거북?)가 중정당의 위엄을 보여준다. 중정당 왼편의 미단이문은 북향한 <도동서원>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판문이다. 여름철 따가운 햇살을 조금이나마 막아보고자 했던 조상의 지혜가 엿보인다.

그림 6. 중정당 기단부의 석룡(石龍)

유생들의 식당이었던 "전사청(典祀廳)"은 지금 서원관리소로 쓰고 있다. 전사청과 중정당 사이에는 향사 때 쓸 생고기를 검사하는 '생단'도 보였다. 도동서원의 흙담도 자랑거리인데 담이 보물로 지정된 곳으로는 전국 유일이라 한다. 돌과 흙, 암키와, 수막새를 골고루 이용해 쌓아올렸고 암키와를 지붕으로 덮어 마무리했다. 흙담에 수키와를 엇갈리게 끼워 무늬를 최대한 살린 장식성이 돋보인다. 바로 옆 "장판각"은 중요한 서적을 보관하던 곳으로 작은 도랑을 만들어 화재를 대비한 것이 인상적이다.

"수월루"에서 "사당"까지 18개의 석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꾸며져 있어 남다른 분위기를 주고 참꽃과 모란, 배롱나무, 국화를 심었다. 김굉필선생과 정구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은 가장 높은 자리 후미진 곳에 위치해 위엄이 서려있다. 한강 정구선생은 김굉필선생의 외증손자로 도동서원을 지을 때 주도적 역할을 했던 분이다. 내삼문 아래 석축엔 태극무늬와 연꽃봉우리, 봉황이 새겨져 있다. 중정당 돌길의 현무처럼 이곳 봉황도 인상이 험악했다. 함부로 근접할 수 없음을 알리는 무언의 메시지다.

### <도동서원의 문화유산과 김굉필선생>

#### 1. 김굉필(金宏弼) 나무

수령이 400년 정도 된 이 은행나무는 선생을 모신 도동서원이 사액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607년 한강 정구(鄭逵)가 심은 것으로 전해지나 성리학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친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김굉필 나무'라 이름 지었다.

#### 2. 김굉필 신도비

김굉필 신도비는 사우당 김대진(金大振, 한훤당의 5대종손)이 후손과 사림 및 경남감사이민구(李敏求)의 협력으로 세웠다. 비문의 찬자는 여헌 장현광(張顯光)이고, 글씨는 사헌부감찰 배홍우가 썼다.

#### 3. 도동서원강당 사당 및 담장(道東書院講堂祠堂附墻垣)

보물 제350호

행사와 교육의 중심 건물인 강당은 앞면 5칸·옆면 2칸 반 규모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을 한 맞배지붕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짜은 구조는 간결한 형태로 기둥 위에만 있다. 좌우 끝 칸은 온돌방으로 꾸몄고 그 앞면엔 각각 작은 툇마루를 두었다. 가운데 3칸은 넓은 대청마루로 양쪽 툇마루와 통하도록 해 놓았다.

제사지내는 공간의 중심 건물인 사당은 앞면 3칸·옆면 3칸 규모로 김굉필 선생의 신주를 모시고 있다. 지붕과 공포를 쌓은 양식은 강당과 마찬가지로 맞배지붕이다. 앞면 3칸에는 각각 2짝씩 널문을 달았다. 강당을 둘러싼 담장은 기와를 이용해 쌓은 맞담으로 구성되어 매우 아름답다.

#### 4. 한훤당 김굉필(寒暄堂 金宏弼, 1454-1504)

고려 말의 정몽주에게서 비롯되어 '길재, 김숙자, 김종직'에게 차례로 전해진 유학의 도통을 이어받은 조선조 사림파의 적자(嫡子)라고 일컬어진다. 서울 정릉동에서 태어났으나 증조부가 현풍 광씨에 장가들어 서흥 김씨의 세거지가 된 현풍에서 성장하였다. 청소년기에는 매우 호방하여 놀기를 좋아하고 남의 눈치에 거리낌이 없었다 한다. 그의 인생에



그림 7. 도동서원의 담장

전환기는 부인 박씨와 18세에 혼인을 하면서이다. 결혼과 동시에 함천군 야로의 처가 근처에 한훤당이라는 서재를 짓고 학문에 열중하게 된다. 그시절 현풍과 야로, 처외가가 있는 성주 가천 등지를 오가며 그곳의 사류들과 교우하며 견문을 넓혔다.

그가 20세되던 1474년 봄, 김종직이 함양 군수로 있을 때, 그를 찾아가 그의 문하에 입문한다. 김종직의 수제자로 성장함과 동시에 조선조 유학의 적통을 잇게 된다. 26세에 생원시에 합격한 후에도 줄곧 학문에만 정진하던 그는 나이 마흔에 경상감사 이극균의 추천으로 벼슬길에 나섰다. 그뒤 사헌부 감찰, 형조좌랑 등을 지냈으나 연산군 4년(1498)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빌미가 되어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김종직의 문도로서 봉당을 만들었다는 죄목으로 "장(杖)80대"와 "원방부처(遠方付處)"의 형을 받고 평안도 회천으로 유배되어 5년간의 짧은 관직생활은 끝장이 났고 끝내는 연산군10년(1504) 일어난 갑자사화 때 무오당인(戊午黨人)이라는 명목으로 이배(移配)된 귀양지 순천에서 50세의 나이에 사약을 받고 일생을 마감한다. 억울한 죽임을 당한 까닭에 증종반정으로 연산군이 쫓겨나고 증종이 즉위하자 곧 복권되었다. 증종은 신진사우를 중용하여 자신의 정치세력으로 삼았고, 그 선두에 '조광조'가 있었다. 조광조는 김굉필의 직계제자였다.

죽은지 3년 뒤인 증종2년(1507)에 사면되어 도승지에 추증되었고, 그뒤 성균관 유생들의 문묘종사(文廟從祀) 건의가 계속되어 선조8년(1575)에는 영의정에 증직되면서 문경공(文敬公)이라는 시호를 하사받았으며, 다시 광해군 2년(1610)에는 대간(臺諫)과 성균관 및 각 도 유생들의 지속적인 상소에 의하여 "동방오현"의 한 사람으로 문묘에 배향되는 영예가 주어

졌다. 그의 제자로는 '조광조, 김안국, 정세창, 이장곤'같은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할 정도로 후학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 법수사지(法藪寺址)와 성주의 불교유산

### I. 법수사지

법수사(法藪(水)寺)는 애장왕 3년(802년)에 해인사를 창건한 순응법사에 의해 세워졌는데, 창건 당시 이름은 금당사(金塘寺)였다고 한다. 고려시대 중엽이후 법수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한때 구금당(九金堂), 팔종각(八鍾閣) 등 1,000칸이 넘는 건물과 도은암(道恩庵), 보현암(普賢庵), 백운암(白雲庵) 등 100여개의 암자를 거느렸다고 한다. 지금은 이 절터를 중심으로 백운리 골짜기 여기저기에 석탑, 돌기둥, 주춧돌, 암자터 등만 흩어져 남기고 있을 뿐이다. 속전에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막내아들 범공(梵空)이 나라가 망하자 중이 되어 여생을 보낸다고 전한다.



그림 8. 법수사지 삼층석탑

#### 1. 법수사지 삼층석탑

지정번호 : 보물 제1656호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은 신라 애장왕(800~809년) 때 창건한 법수사지(法水寺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지는 가야산 계곡을 석축으로 단을 조성하여 자리 잡고 있다.

사역은 남북 150m, 동서 150m 정도이고 크게 세 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금당지로 추정되는 축대 아래에는 백운동마을이 자리잡고 있으며, 마을 앞에는 당간지주가 고목의 뿌리에 일부 쌓여 있다. 석탑의 높이는 5.8m이며, 상하 2층 기단에 3층의 탑신부를 올린 양식으로 노반 이상의 상륜부는 남아 있지 않으나 보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그림 9. 법수사지 당간지주

석탑은 규모가 작아지고 하층기단이 높고, 안상이 음각된 점 등의 9세기 후반기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옥개석의 층급받침이 5단인 점 등은 전형적인 신라 석탑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찰의 창건시기인 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2. 법수사지 당간지주

지정번호 : 경북 유형문화재 제87호

당간지주는 사찰 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절에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면 이곳에 당이라는 깃발을 걸어둔다. 이 깃발을 꽂는 길쭉한 장대를 당간이라 하며, 당간을 양쪽에서 지탱해 주는 두 돌기둥을 당간지주라 일컫는다. 드물게 당간이 있으나 대부분 두 기둥만 남아있다.

법수사의 옛 터에 자리한 이 당간지주는 직사각형의 돌



기둥 2개가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간결하며 단아한 모습으로, 당간지주의 계보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 II. 성주 보월동 삼층석탑

지정번호 : 경북 유형문화재 제 119호

무너져 땅 속에 파묻힌 것을 1979년에 복원해 놓은 석탑으로, 바닥돌 위로 2층의 기단(基壇)을 높직하게 마련하고, 그 위로 3층의 탑신(塔身)을 쌓아 올렸다.

기단은 아래·위층 모두 각 면의 가운데와 모서리에 기둥모양을 본 떠 새겼다. 탑신부의 각층 몸돌은 모서리에만 기둥조각을 두었다. 지붕돌은 밑면에 5단씩의 받침을 두었고, 윗면의 경사는 비교적 느리게 흐르고 있으며, 처마는 수평을 이루다 네 귀퉁이에서 희미하게 위로 들려 있다.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8세기 중후반경의 탑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0. 보월동 삼층석탑

## III. 금봉리 석조비로자나불 좌상

지정번호 : 보물 제1121호



그림 11. 금봉리 비로자나불좌상

진리의 세계를 두루 통솔한다는 의미의 비로자나불을 형상화한 것으로 대좌(臺座)와 광배(光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신라 후기에 만들어진 석조불상이다.

머리 위에는 넓직한 상투 모양의 머리(육계)가 있으며 얼굴은 둥글고 단정한 인상이다. 단아한 체구에 양 어깨를 감싼 옷은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있으며, 높직한 무릎으로 인하여 신체는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진 손모양은 비로자나불이 취하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광배는 머리광배와 몸광배로 구분하였는데, 머리광배에는 연꽃무늬를 몸광배에는 불꽃무늬와 작은 부처를 세밀하게 조각하였다. 불상이 앉아있는 대좌는 상대·중대·하대로 이루어진 8각 원당형대좌로 사자와 구름무늬를 새겨 넣었다. 중대의 북 모양이나 상대·하대에 새겨진 연꽃무늬는

표현기법에서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244호)의 양식을 이어받은 작품으로 보인다.

## IV. 성주 동방사지 칠층석탑

지정번호 : 경북 유형문화재 제60호

동방사터에 남아 있는 7층 석탑으로, 원래는 9층이었다고 전한다. 절터는 성주읍내에서



그림 12. 동방사지 칠층석탑

왜관으로 가는 국도를 따라 약 1km 떨어진 도로변에 자리잡고 있는데, 신라 애장왕 때 창건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절이 모두 불타버리고 현재는 이 석탑만 남아 있다. 기단(基壇)의 네 면과 탑신(塔身)의 각 몸돌에는 기둥 모양의 조각을 두었으며, 특히 1층 몸돌에는 문(門)모양을 깊게 새겼다. 1·2·3층 지붕돌 네 귀퉁이에는 연꽃무늬가 조각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고려시대의 자유로운 조각양식이 엿보인다.

탑이 자리하고 있는 성주지역의 지형은 소가 누워서 별을 바라보는 형상으로, 이 때문에 냇물이 성주읍을 돌아 동쪽으로 빠져 나가는 것으로 보아, 성주땅의 기운이 냇물과 함께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비보탑(裨補塔)<sup>2)</sup>으로 세웠다고 전한다. 따라서 성주땅의 기운을 보호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명 ‘지기탑(地氣塔)’이라 부르기도 한다.

## V. 성주와 참외

### 1. 성주에서 참외 재배가 발달한 이유

- ① 성주 지역의 흙이 화강암 부식토라 칼슘 함량이 많다.
- ② 고온 건한 기후와 풍토의 참외 재배에 좋은 조건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 ③ 대부분의 농민들이 30년 가까이 재배 경력이 있어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림 13. 달고 맛있는 성주 참외

### 2. 성주 참외의 특징

- ① 육질이 아삭아삭 하다.
- ② 당도가 높아 맛이 좋다.
- ③ 과피색이 선명하고 아름답다.
- ④ 저장성이 강해 시장에서 최고의 상품가치를 지닌다.
- ⑤ 성주참외는 이 지역의 흙이 점질사양토라 칼슘함량이 많고 낙동강의 물과 가야산의 자연 등 고온건조한 기후로 참외재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2) 비보사탑설(裨補寺塔說) - 도선(道詵, 827~898)이 내세운 사상으로 땅의 기운이 쇠하거나 강한 곳에 사찰, 불탑, 불상, 당간 등을 세워 땅을 인간에게 이롭게 바꾼다는 것이다.